

평화 깃드는 추석 함께



올 추석 선물은 평화

살아생전 볼 거라 상상 못했던 일들이 매일 눈 앞에 현실이 되는 요즘입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와 비핵화 등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전쟁위협을 줄이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 노동시민 모두에게 절실하고 좋은 일입니다. 회담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여러 방면에 있다 해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위력을 잃은 반공 이데올로기, 전쟁위협 논리가 약해진 자리에, 그로 인해 수없이 가로막혔던 노동권 확대와 사회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터에도 평화



4.27회담 당시 화제였던 농담이 있습니다. “시베리아횡단열차 뚫려도 한국사람들 못 가. 휴가 짤아서” 기발하지만 뼈아픈 농담입니다. 평화의 물결 속에도, 전쟁위협 중에도 우리 일상은 계속됩니다. 5년에 한 번 선출되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평화는 진전도 후퇴도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세습권력 자본 앞에 우리 일상을 진전시키는 것은 오직 권리의 터전 노동조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회분위기가 많이 변했다지만, 삼성전자 공장에선 맥없이 사람이 죽고, 여전히 자본은 기회를 노려 노조를 공격합니다.

올 3월 금속노조로 전환, 지부로 온 **광신판지분회**는 지금 강남 대양그룹 본사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협해지 통보를 했고, 분회는 단협회복과 노조인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연휴 직전에도 함께 해 준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6월 지부 새식구가 된 **한국와이퍼분회**는 19일 10차 교섭에서 회사가 상여금 일부 월할지급과 단계적 기본급화, 5% 인상안을 들고나왔습니다. 조합활동과 고용안정은 제시안이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저축을 피하자는 겁니다. 분회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추석 직후 조정 등 본격 투쟁을 준비합니다. 7월 가입한 **유진분회**도 한참 교섭 중입니다. 13일(목) 지부 임원들은 신규분회사업장 임원들과 모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성의 성안에 권리의 터전을 짓고자 분투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일부직군 자회사 방침에 맞서 투쟁하며 식구를 늘

려가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새로 **동탄센터분회**가 설립됐고, 자재를 담당하는 양상블, 콜센터인 E2C도 계속 늘어납니다. 권리를 찾아온 새 식구에게도 평화가 깃들도록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대케피코, 코리아에프티 연휴넘겨 교섭

집단교섭 사업장 중 **썬택지회**도 보충교섭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해 21일 조인식 예정입니다. **현대케피코지회**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보충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안 등 격차가 커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조직을 추스르고 추석 후 교섭을 재개합니다. 대각선 사업장 중 **우리지회**, **르그랑코리아지회**, **지큐피앤씨지회**도 무사히 올 해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리아에프티지회**는 여전히 상여금을 핵심쟁점으로 교섭 중이며 추석 이후까지 여유를 갖고 교섭할 예정입니다.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말레동현화성지회**는 조합활동 상향 및 토요일 4시간 복원 등에 합의, 10월 4일 조인식 예정입니다.

부품3사 임단협 타결

13일 **현대위아안산**, 오늘(20일) **현대모비스화성**과 **현대모비스평택지회**도 의견접근했습니다. 모비스평택지회는 2월 설립 후 첫 단협 체결로 현장의 당당한 주인이 됐습니다. 화성과 안산지회는 2년 차 임금인상 투쟁을 마쳤습니다. 작년 화성지회 설립 후 부품사지회가 전국에 7개 더 생겨 10개가 됐고, 경기에는 4개 지회 1,200여 명 조합원이 있습니다. 확 늘어난 노조를 대하는 그룹의 움직임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룹 타결방침에 전체를 길들이려는 기조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3지회는 ‘10원도 안 올려도 우리가 결정한다’는 태세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노조 일은 농사짓는 일과 같습니다. 해마다 수확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지만, 내 땅의 상태를 알면 가꾸고 살피서 매년 농사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화성지회가 생겼기에 전국에 동료가 생겼고, 함께 싸웠기에 우리가 선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뒷배가 되어준 지부 전 조합원께 감사, 쉽지 않은 싸움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패기를 보여 준 3지회에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추석연휴 직후 10월에는 지부 임원 보충선거가 진행됩니다. 늘어난 식구만큼 집행력 충원이 절실했는데 보충선거를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부 조합원 모두에게 평화가 가득 깃드는 한가위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후에도 우리 일터의 평화를 위해, 노동시민의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2018.9.20. **좋은관계 금속경기 임원 일동**

지부장 정구양, 수석 이기만, 부지부장 윤옥동, 사무국장 김영신

진심 · 열공 · 따봉



이 고맙다고 십시일반한 봉투를 다시 간부들에게 쥐어주며 홀연히 밤길을 떠났다. (위 사진 맨 왼쪽) 뒤풀이 중에도 분회 간부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열공을 이어갔다. (사진 가운데) 이런 진심과 열정에서 자력현장의 진짜 힘이 나온다.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투쟁이 오늘로 133일차다. 매일 아침 출투, 매

주 화요일 공단선전전을 더 확대해 지난주부터는 6개 계열사 선전전까지 나섰다. 이른 아침 출투를 마치고 물품을 정리하는 간부가 엄지손가락 부상 중이다. “어쩌다 다쳤소” 문자 “아 이거, 따봉하려고”하며 웃는다. (사진 맨 오른쪽) 추석 후에도 첫 시작처럼 다시 열심히 투쟁하자고 결의한 인지지회, 당신들이 정말 따봉.

신생 한국와이퍼분회가 지난 8일(토)~9일(일) 대부도에서 첫 확대간부수련회를 열었다. 조직체계 안정화, 부서별 활동과 구역별 소통 방안을 논의하고 결의했다. 확대간부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뒤풀이에선 회를 뜨는 셰프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간부가 아니지만 간부들이 주말에 모여 조합 일을 하는데 응원해주기 위해서 온 조합원이다. 눈에 안 보이는 빠른 칼질로 싱싱한 회를 떠준 이 조합원은 간부들

금속경기 부지부장 보충선거

선거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06시 30분 ~ 10월 12일(금) 17시
 입후보자 등록기간 : 선거공고 시부터 2018년 9월 28일(금) 17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장소 :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251-7095
 입후보자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2) 조합경력 1부(10개 미만)
- 3) 선거에 필요한 각종 자료(세부내용은 등록서류 참조)

금속노조 2018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총회(투표)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00시 ~ 10월 12일(금) 17시



○ 시그네틱스분회의 3번째 해고 투쟁, 해고무효소송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파주공장으로의 복직이 다음 답입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쌍용차지부 9년 만의 복직 합의를 축하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파주-민통선 평화기행

4.27평문점 선언 이행 대책제재 해제 종전선언 촉구



2018 10 20(토) **화랑유원지** 08:30
평택역 07:30 → **안중출장소** 08:30
 참가신청 상황에 따라 출발지 조정될 수 있음

DMZ 파주-민통선 임진각 자유다리, 방배단, 녹슨철마,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등

신청마감 : 10.12(금) 120명 선착순 참가비 : 1인 1만원
 당일 주민등록증 지참 (어린이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여권)

○주최 금속노조경기지역공동운영위 ○주관 금속노조 경기지부
 (문의전화 031-251-7095/박동진 조직부장)